

## 아트 홀릭

## 애매모호한 세상

한지와 필묵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 수묵화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. 이기봉(고려대 교수·57) 작가는 설치작품으로 수묵화를 재해석했다. 폐쇄된 공간 안에 연무기(Fog machine)를 넣고 뿌옇게 안개를 채웠다. 이 공간 안에는 다 죽어가는 인공의 나무 한 그루가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. 경계가 모호하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이 주는 인상은 마치 흑백영화의 풍경 혹은 동양의 수묵화와 같다. 작가는 국제갤러리(2008년)와 아르코미술관(2012년)에서도 이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.

이기봉을 포함, 김상진, 홍범, 권기범, 하지훈, 김은주, 박기원, 김수영, 카입(본명 이우준) 등 작가 9명의 그룹전이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'Into thin air'라는 주제



이기봉, There is no place, 유리·포그머신·인공잎사귀 등 가변설치, 2008/2015

[사진=김아미 기자/amigo@]

로 금호미술관(종로구 사간동)에서 열린다. 공간을 해석한 회화, 영상, 사운드 설치 작품들이 공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다. 작품은 온통 흑백이다. 색채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일체의 통념을 차단했다. 이 전시에서는 작품과 주제와의 유기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. 그저 잠시 머물며 쉬어가면 된다. 김아미 기자/amigo@